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5)

◎ 일변도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중국만을 다루고 있어 중국 일변도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일변도는 백해(百害)만 있고 일익(一益)은 없어 매우 위험하다. 물론 중국 일변도는 좋지 않다. 미국 일변도도 좋지 않다. 필요한 것은 자립이다. 자립하면 시시비비(是是非非)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에 반대하지 않고는 중국과 잘 지낼 수 없다. 또는 중국과 좋게 지내면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이 된다와 같은 일면적인 사상이 강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는 더욱 좋게 지내면서 모두 다 좋게 지낸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재주 있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정치란 그런 것을 하여야 한다. 추상론이나 이상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옮겨 갈 수 없는 관계, 서로 이해해 나갈 길은 우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

좌우간에 일중 관계라는 것은 좋건 싫건 서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가 없다. 옮겨 갈 수 없으며 바로 옆 나라이므로 충분히 말해보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키 포인트는 일중 쌍방이 서로 우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기억에 의하면 1954년에 주은래 총리는 일본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중 간의 불행한 시기는 과거 수천년 중 불과 60년 정도이며, 그것도 이미 과거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행한 과거를 완전히 과거의 일로 만드는 노력이야말로 중요하며, 하물며 그것이 손자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된다.”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서로 장기적이며,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끼리만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경제계·문화계 등을 중심으로 교류하여, 그 톱(top)끼리 대화하여 공통성이 나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간단한 예를 든다면, 고교생이나 중학생의 중국 수학 여행을 실행하면 어떨까? 정부가 하려고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다. 수학 여행용 배 2, 3척을 빌리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그 사업을 지원만 하면 된다.

지금 동해 대지진에 대비하여 동해의 경우에는 피난갈 곳이 없으므로 2척이나 3척은 대기한 체라고 한다. 그 배들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수학 여행을 하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홈 스테이도 하여 친구를 만든다. 그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만든다. 이와 같이 자상하며 계속성이 있는 일을 우선 시작하면 어떨까?

요즘 일중이 협력하여 서로의 이익을 보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 일미 안보 체제를 견지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구축한다.

문화의 힘이란 크다. 생각해 보면 21세기와 지금까지의 세기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20세기까지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큰 소리 치던 시대였다. 정치 배경에는 군사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7개의 바다를 지배한 앵글로 섹슨(Anglo-Saxon) 등의 방법은 포함 외교(砲艦外交)라고 말하고 있다.

또는 미국의 경우, 이라크에서 1발에 6천만 엔이나 하는 탄도탄 미사일을 700발이나 쐈다고 하는데, 히로시마 원폭의 몇 10배의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1만 개도 넘게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군사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원폭을 1만 발 갖고 있어도 이라크는 군사력으로 해결이 안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안정 정치가 안된다. 결국 군사력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미국은 아시아에 그리고 21세기에 갖고 들어왔다.

◎ 중국 위협론의 배경

중국 위협론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중국 군사비의 불투명성, 이와 관련된 대만 문제가 얽혀 있다.

먼저 중국 경제의 GDP를 보면, 20년 후면 일본에 따라붙고, 50년 후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일중 무역은 일미 무역을 앞질러 톱(top)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봐도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 한다.

다음에 군사비의 불투명에 대한 문제에서, 군사비의 신장률은 두 자리 수라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매스컴은 이를 크게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측 설명은 불충분하다. 좀더 친절하게 세계가 이해할 수 있게 투명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중국 측에게 진지하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

대만 문제에 대하여는, 호금도가 군사 위원회 주석이 된 현재 강택민 시대

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대만에 대하여는 모친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계는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차 대전 때의 윌슨 대통령, 제2차 대전 때의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각기 전후에 세계 평화에 응분의 공헌을 하고 있다. 부시가 고이즈미를 끌어들인 중국 봉쇄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미국은 9.11 이후에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며, 크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아시아 문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말한다면, 나는 원래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군사적으로 치는 이라크 방식에 대하여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 일본의 주변 3개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북한이 폭주하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경제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내부에서 변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듯이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문화ㆍ인적 교류를 계속하면 독재 정권은 자연히 수렴되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고 일본과 한국에 협력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군사력으로 세계에 행세하려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군사력이 아닌 경제ㆍ문화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방위력(防衛力) 등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 안전 보장 체제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하여 우선 일중 두 나라

가 꼭 손을 잡고 21세기 세계에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일미 군사 동맹을 굳게 지키고, 이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환경을 동아시아에서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전쟁이 없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으며, 우선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상당히 복잡하면서 장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키포인트는 일、중、한이 결속하여야 하며, 참가국 문제는 탄력적으로 추진하여도 좋다고 본다. 또한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EU보다도 정치적으로는 앞선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머지않아 21세기를 일、중、한을 중심 핵으로 하는 왕도 즉, 전쟁이 없는 세기로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